

# 전남교육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 발표



민선3기 전남교육의 기본 방향을 담은 슬로건 디자인이 확정됐다. 전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선3기 전남교육 슬로건인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당선자는 전남예술고등학교 1학년 문지원 학생이다. 당선작 발표 후 순천청암고등학교 김형우 교사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과 전문업체가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 디자인이 이날 발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문지원 학생과 김형우 교사는 장석웅 교육감에게 확정된 디자인을 전달했고, 장 교육감은 당선자에게 시상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문지원 학생이 낸 당선작은 양팔로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모양과 '소중' 위에 찍은 점 두 개를 아이와 어른(교육공동체)의 웃는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색상에서도 팔은 서늘해안이 감싸고 있는 전남의 바다색이면서 동시에 신뢰를 뜻하는 청색, '소중'이라는 글자와 두 얼굴은 따뜻함을 나타내는 주황색을 선택해 슬로건의

## 전남교육청,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전남예술고교 1학년 문지원 학생 최종 선정

의미와 전남의 특색을 살렸다. 전남교육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43일간 진행해 총 122건을 접수했다. 122건은 학생 45건(초 17건, 중 8건, 고 20건), 교원 41건(유 4건, 초 21건, 중 6건, 고 10건), 일반직 14건, 학부모와 도민 22건으로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지역도 목포, 무안, 장흥, 해남, 신안, 완도, 진도,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나주, 화순, 영광, 장성, 함평, 곡성 등 전남 전 지역에서 두루 참여하였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11월 9일 7명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당선자를 공개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손으로 만든 디자인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아무 대가 없이 디자인을 보낸 준 김형

우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지원 학생에게는 "1학년인데 벌써 이런 소질을 발견한 것이 대단하다."며 "고등학교 3년간 꾸준히 소질을 개발하여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지원 학생은 이 디자인은 "민선3기 전남교육의 슬로건인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내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전남교육의 바라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디자인은 공문으로 각 기관에 전달돼 전남교육 공식 슬로건 디자인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홍보담당관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홍보마당 공지사항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일러스트파일(AI파일)을 탑재해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완도 금일초 서충현 교사, 교육부장관 표창

지난해 12월 31일 완도군 금일초등학교(교장 임선희) 서충현 교사(30)가 능어촌 학교의 ICT 인프라 구축과 교육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능어촌 교육여건 개선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서 교사는 2015년부터 휴일과 방학을 불사하며 낙후된 방송장비와 정보화기기, 네트워크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2017 삼성 전자 스마트스쿨 사업을 유치하여 약 1억여 원 규모의 스마트교실 마련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교육 환경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에서 멈추지 않고, 스마트·SW 수업연구 활동, VR캡처 교육기부 활동 등으로 스마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서 교사는 "스마트인프라는 능어촌 학생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눈과 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컴퓨터교육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 순천교육지원청 - 지뜨호텔

### 연말연시 나눔 물품 전달 행사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훈)은 지난해 12월 31일 순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주)지뜨호텔 지뜨호텔 김현형 대표와 함께 2018년 연말연시 나눔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지뜨호텔은 연말을 맞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쌀(20kg) 70포대를 순천교육지원청에 전달했으며, 나눔 물품은 순천 관내 중학생 20여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뜨호텔 김현형 대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도움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순천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길훈 교육장은 "지뜨호텔의 나눔 물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앞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사업을 더욱 많이 계획하고 지원하겠다."라고 교육복지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나눔 물품은 해당 학생 집에 직접 배달될 예정이며, 2019년에는 더 많은 나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나눔 활동 단체와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에는 금호평생교육관으로 놀러오세요"

지하식당→휴게실로 리모델링...시민 휴식 공간 마련

올해 1월1일부터 국·공휴일 개방을 결정한 금호평생교육관(광주광역시교육청 지속 도서관 관장 이용채)이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특별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송정도서관 등 산하 공공도서관 3곳은 연중 개방일을 14일 늘려 1년 중 339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과 공휴일에도 시민들이 도서관 학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평생교육관은 노후된 지하식당을 새로운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새로운 휴게공간은 따뜻한 조명과 그림이 있는 찻집 모습으로 꾸며졌다.

한홍규 관리과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해 지하 휴게공간을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교육관을 편안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된 공공도서관 열람실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 국·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휴관일은 매일 1·3주차 월요일 정기 휴관일과 설·추석 명절 당일(하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도서관의 국·공휴일 휴관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도서관 공공서비스 증진 노력의 결과다.

조인호 기자



## 보성교육지원청, 노동초 학생들 작품 전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매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의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품을 정제 '갤러리 꿈꾸이'에서 전시하고 있다. 2019년 첫 전시 작품은 노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화 작품이 갤러리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배움과 자람이 함께하는 즐거운 꿈터'인 노동초등학교(교장 김선미)는 꿈동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교육을 통해 넓은 세상에 자기 꿈을 맡겨 펼치는 행복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교생 28명이 학교 국화축제 때 전시 할 작품을 3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서 수업시간에는 시를 쓰고, 방과후 학교 미술부 활동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틈틈이 완성한 시화 작품이다. 학교 축제 때 전시하여 학부모님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던 작품이기에 '갤러리 꿈꾸이'를 오고 가는 많은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한다.

작품을 지도한 1학년 담임선생님은 "시 쓰기 지도와 그림지도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막상 작품이 완성되어 액자에 넣을 때는 가쁜 땀뭍함에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인규일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